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화가 임하는 신앙 스타일 2

(마 23:23-36)

## The Faith Style of Meeting with Woes II

(Matt. 23:23-36)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23절).

그들이 버린 것은 율법의 정신,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일조를 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만 그 보다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의와 긍휼과 믿음의 일들도 더욱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24절).

유대인들이 마시는 포도주통에는 하루살이 같은 날파리들이 종종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하루살이들을 촌촌한 망으로 걸러냈습니다. 이것은 하루살이를 먹는 것이 정결예식에도 걸렸지만 곤충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작은 하루살이들을 마치 큰일이 나 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면서 걸러내는 사람들이 낙타는 그냥 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질구레한 율법들은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 곧 율법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26절).

깨끗함과 정결함은 먼저 우리의 내면세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겉사람의 습관과 생활이 성결하게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세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렇게 되면 내면세계가 정결하게 되고 따라서 겉사람의 생활과 습관도 정결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34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으며 사도 바울은 저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는 분명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 또한 가식적인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다가 지옥의 판결이 아니라 이름답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continued to curs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The reason why they were cursed is that they wanted to receive much more recognition by people than by God.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give a tenth of your spices mint, dill and cumin. But you have neglected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v. 23).

The thing that they neglected is the spirit of the law, in other words,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Jesus says that it is not bad to keep tithes thoroughly, but we must realize that the spirit of keeping is more important, and also toil for the righteousness, compassion, and faith is harder.

“You blind guides! You strain out the gnat but you swallow a camel” (v.24).

The flying bugs like gnats would often fall into the bucket from which Jewish people could drink. Before they drink wine, they strain out a gnat through a very fine net. Though this means that to eat a gnat is related with cleanness, the reason why they should not eat insect is written in the law. Nevertheless, it is the fact that by making a fuss, those who strain a gnat through a fine net just as a great thing happened to swallow a camel. In other words, by saying that they keep a trifling matter, they ignore the spirit of the law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Blind Pharisee! First clean the inside of the cup and dish, and then the outside also will be clean” (v. 26).

The cleanness should begin our inner world. Accordingly, our habit and life can be made clean. But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always pay attention to something seen outwardly, because for them, one’s eyes take priority over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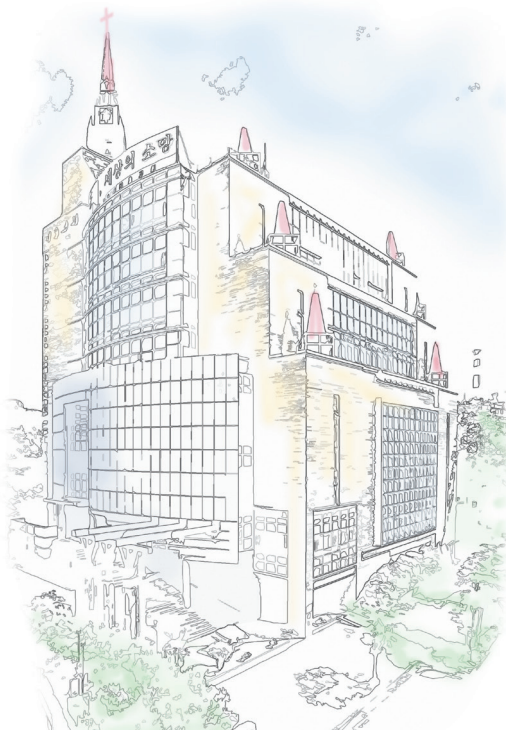
If we give our inner world to the Lord, and start to confess thoroughly, our dirty sins inside of us can be cleaned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If so, the inner world should be clean, consequently, the outward habit and life should be clean.

“Therefore I am sending you prophets and sages and teachers. Some of them you will kill and crucify, others you will flog in your synagogues and pursue from town to town” (v. 34).

They had Jesus crucified on the cross and his disciples contributed to his persecution and death. Peter was killed upside down on the cross, Steven was stoned to death, and Paul was persecuted by them beyond expression.

My beloved Christians,

Jesus’ attitude toward hypocrites is clear. By thoroughly confessing our pretentious faith before Jesus’ reproaching teachers of the law, the Pharisees, we must long for Jesus’ grace and compassion, apart from hell’s judge, and go to His wonderful and glorious throne.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제14대 장로후보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

##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4대 장로후보 20명 선출-

우리교회 제14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제직(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협력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장로 후보는 집사와 시무권사를 대상으로 하되

2014년 임직한 자들과 2015년 은퇴 예정인 자들은 교회 규정상 제외된다.

장로후보 20명 명단은 5월 10일자 순례자에 간지로 게재될 예정이며, 5월 17일 공동의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로 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성도들의 깊은 기도로 준비되어 은혜 중에 이번 선거가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 제4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 주제 : 한국장로교회 한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연합 5월 18일 (월) 오후2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한국장로교의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한국장로교회가 250개 이상의 교단으로 분열된 현실은 자랑이라기보다는 그 이유가 어떠한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원로목사)은 최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발의, 추진하고 있는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로 47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1부 경건회로 시작하여 2부 세미나에서는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제1강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 다체제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제 박경수 박사(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응답 이상규 박사(고신대 역사신학 교수)로 진행되며 제2강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 다체제가 한국교회연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 김경우 박사(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 응답 최갑중 박사(백석대학교 총장)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 Panel 토의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



# 선교회 연합 야외행사

## 5월 5일(화) 오전9시~오후4시, 베델하우스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최광성 장로) 주관으로 선교회 연합 야외행사가 5월 5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베델하우스(남양주시 삼패동 604-3)에서 진행된다. 선교회 연합 야외행사는 교회 사랑과 선교회 부흥발전을 목적으로 모인다. 참석대상은 빌립, 안드레, 베드로, 바울, 엘리야, 모세, 이삭 선교

회원 및 회원 가족들과 당회원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건회(9:00~9:30), 2부 선교회별 족구대회(9:30~12:30) 및 점심식사(식사 후 선교회별 월례회)(12:30~13:30), 3부 각 선교회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게임)(13:30~15:30) 순으로 진행된다.

# 4월 세례식 거행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 19일 주일 1,2,3부 예배시 2015년 두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1,2,3부 예배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강찬양 김문수2 김수정6 박승도 박찬수1 명인식 신승우 안진형 안서현 안성우 이선희7 홍창호 홍민주 계13명
- 입교자 : 박석송 송채원 계 2명
- 개종자 : 김법순 박원 계 2명
- 유아세례자 : 김이환 김채윤 유다연 양우성 이연호1 채지윤 계 6명

총 23명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6)

(문 166) 마가복음 8:12-13과 마태복음 12:38-39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을 메시아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 마가복음 8:11-14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 시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38-39 에서는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삼일삼야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표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여주시기를 요구한 표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의 부활 때까지 오랫동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예수님에 의해 거절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29은 마태복음 12:39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태기사가 조금 더 구체적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마태기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 환경은 다른 경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4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받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막8장은 마12장 말씀보다는 16장 말씀과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그들 앞에서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타락하고 음란한 동기로 저들이 표적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막8장에는 마16과는 달리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 뿐입니다.

공관복음서를 연구하는 이들은 예수의 말씀이 조금 더 길게 또는 조금 더 짧게 표현된 곳이 여러 곳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길거나 또는 짧아졌다고 그 원래정신이 파괴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음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은 두 학생의 노트를 대조(또는 비교)해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한 이와 간결하게 요약만 정리한 이가 있듯이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교구별 특별찬양 - 1, 16교구

#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문건 목사 (1, 16교구 지도)

샬롬! 저희 1교구와 16교구는 5월 31일 주일찬양 예배 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께는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교구특별찬양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금요일 오전에 2차례, 5월에는 토요일 오후에 3차례, 1교구와 16교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맘을 다하여 찬양을 연습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연합다락방 모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후, 16교구 유기순 권사님의 지휘와 1교구 강요혜 성도님의 반주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 지라'와 복음서가 '어찌하여야'를 함께 찬양하였는데,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교구특별찬양 준비를 위하여 저희 1



교구와 16교구에서는 교구장로님들과 부교구장님들, 간사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시며 헌신하고 계시며 다락방리더들께서도 모든 다락방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구에 소속감을 느끼고,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되기를 소망하면서 전원 참여하시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5월 31일 주일찬양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4월과

5월에 서로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1교구와 16교구가 더 하나 되며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교구특별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으시고 서울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린 프로그램 - 이미용선교

# 복음 전파의 도구로



채명숙 집사 (16교구)

오십이 넘어서도 또다시 뭔가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지인들과 함께 미용으로 뜻을 모으고 사설 미용학원에서 공부하였고 운전면허 취득이후 실로 오랜만에 국가자격증을 여러번 낙방 끝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서울교회 미용팀에 당당히 합류했지만 그것이 자만이었던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은 말 그대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으며 미용 봉사를 위해서는 또 다른 내용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용봉사팀에 들어와 보니 우리 교회 미용봉사는 이미 13년째 한 달에 두 번, 첫째 둘째 화요일 노인 요양시설, 복지관, 정신센터 등으로 봉사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묵묵히 감당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이 되어 몇몇 분은 해외선교로 그리고 저를 포함한 회원들은 가까운 경기도로 미

용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지 않았고 아침부터 회원들은 정신없이 커트와 파마 그리고 염색까지 하루 종일 잠시도 앓을 시간 없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용을 원하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일하면서 미용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힘든 미용봉사가 끝나고 회원들은 거기 계셨던 모든 분들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찬송부르며 기도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교회에 돌아와서 회원들과 더불어 회의하던 중 저희 회원 중 한 분이 다른 교회 미용팀에서 공부했던 과정을 듣게 되었고, 회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와 고군분투, 우여곡절 끝에 실력있는 강사를 모시고 14명의 회원으로 제1기 열린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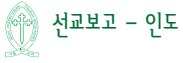


써 그 회수가 중반을 넘어 서고 있고, 생전 가위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이분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생각을 뒤로한 채 지금은 정말 뜨거운 학구열과 후끈한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회원 중 한분이 용감하게 주위에 친구의 미용을

해주기까지 했다는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회원들이 이 열정을 이어 수업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달란트로 가정은 물론 더 나아가 미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미용학교가 명실상부한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을학기에 열리는 제2기 이미용학교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굵주린 영혼이 많은 인도 땅에서



① 자그달뿌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식 및 초등학교 2층 공사 시작  
 ② 서울교회 우물파기 공사 공사 중 사진  
 ③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공사준비  
 ④ UBS 신학교 졸업식

서울교회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6. UBS 신학교 졸업식

제가 사역하는 뿌네의 USB 신학교가 120명의 신대원 학생들, 20여명의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50여명의 단기 코스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저도 졸업하는 제자들과 졸업을 축하하며 새로운 사역을 나누며 기도하였습니다.

### - 기도 제목 -

1.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양성하는 하나님 선교 사역에 집중케 하소서.
2. 강의와 설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3. 인도 성 총장님과 더불어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일정이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세 딸들의 학업과 진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소서.

### 인도에서 조범연 선교사

저는 지난 3월 23일부터 본교단 선교사 회의와 자그달뿌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초등학교 2층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식에 참여하고 신학교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교회 건축 공사장을 돌아보고 4월 10일에 돌아왔습니다. 17일만에 걸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인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향한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큰 감사와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굵주린 영혼이 많은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 본교단 선교사 모임

북인도에 소속된 본교단의 12명의 선교사들이 북인도 심라의 YWCA 회관에서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을 위한 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순천인도북동부 선교회가 운영하는 2개 신학교가 본교단 선교사들의 주요 협력의 장으로 개방되었습니다.

### 2. 자그달뿌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식 및 초등학교 2층 공사 시작

자그달뿌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에서는 지난 3월 31일 9명의 졸업생을 위한 졸업식과 파송예

배를 드렸습니다. 조범연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파송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층공사를 위한 자재구입 등을 시작하고 우물파기 공사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 3.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식 및 신학교 건축 공사 준비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에서는 지난 4월 6일 1년 신학훈련코스 6명의 졸업생을 위한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조범연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권면의 말씀으로 졸업생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신학교 공사를 위한 우물파기와 터 돌우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1일이 신학기 개강이어서 그 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 4. 아잠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회자 훈련원 공사준비

아잠지역 목회자 훈련원 겸 나갈랜드 제 2 캠퍼스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땅문서를 양도한 후에 바로 주변 담장 공사와 짓다만 건물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 5. 서울교회 우물파기 공사 시행 중

서울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헌금으로 우물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6월 초에는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큰 물탱크를 설치하고 머릿물을 서울교회이름으로 부착할 것입니다. 후원해 주신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27일(월) 한국로잔위원회 임원회에 참석한다. 4월30일(목) 논산훈련소 연복대학교 신축착공 예배에 참석한다. 5월2일(토) 사랑의 쌀 운동,국제올림픽바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주일식당봉사 : 도르가 전도회(4.26) 외포 전도회(5.3)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영준 장로 박태희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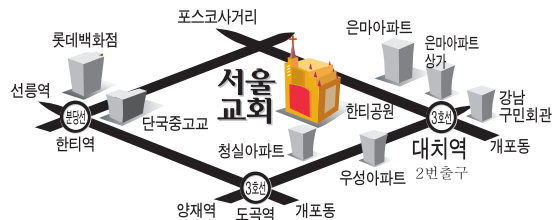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4월 세례, 입교, 개종하신 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2. 교구별 특별찬양이 은혜롭게 준비 되도록
3.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를 통해 한국교회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